

제 61 호

연중 제 3 주일  
(구라주일)

1974. 1. 27

# 숲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함 승 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 【강 련】

## 구라주일

김 영 신 신부



「자기관이 살려주는 의욕은 자기에 해로운 일이며 자기가 알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사회에 해를 끼치게 되면 그 얼마나 헛된 일인가?」

모 병원에서 주간 근무를 마치고 야간에도 쉬지 않고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며 나병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분의 말씀을 듣고 나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자신이 나병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던 어느 환자가 "제가 가족의 돌림을 막아 주세요! 저로 하여금 저의 부모 형제들마저 이웃과 마을에서 눈치보는 생활과 따돌림을 받은 생수 없게 하고 있음은 나의 불행보다 더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서로가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어느 정착장에 갈까도 생각했지만 오늘도 말 못하는 가슴을 알고 미래의 희망을 쥐어짜고 있습니다."라고 호소했다 한다.

그의 더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속에서 빛을 못보고 숨어 있는 냉대와, 멸시를 마음껏 주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으니 이들은 나환자이며, 그들은 자신이 아무 잘못도 없이 인생의 값의 가치를 잃지 않는가?

실은 이들도 인간으로 인간의 우대를 똑같이 받아야 하며 국가 사회의 모든 혜택은 그들에게도 골고루 가야 한다고 본다.

오히려 죄가 있다면 사회에 있다. 왜냐하면 약 20년전부터 나병은 완전히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조기 치료하면 고칠 수 있으며 사실상 등록된 환자중 90%가 나았다는 데도 불구하고 사회는 그들을 여전히 「문둥」시 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사회는 무식하고 인색하다. 우리의 인식과 태도가 고쳐지지 않는 한 「신자 한 사람이 10월이면 80만명이 8백만원」이란 캐치 프레이즈를 내 걸어도 구라사업은 요원한 문제 일 것이다.

나병은 나균에 의하여 감염되는 만성 전염병으로 유전병이나 천형병도 아니며, 치료 방법도 격리치로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재가 치료가 원칙으로 돼 있다.

이 나병 후의 보기 흉한 외모는 마치 천연두 후에 열이 풀리거나 소아마비 후에 절음발이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의 후유증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하며 세상에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은 어둠과 괴로움과 차가움이 있다는 점을 문제시 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에 약 1,200만명의 나환자가 주로 후진국에 산재해 있으며 한국은 8만명으로 추정되나 3만 8천명만이 정식 등록하고 있다 한다. 나머지 약 4만여명(반수이상)은 계몽 교육이 잘 안되어 걸진 발을 사라는 호응을 하지 않고 있거나 또 환자 자신이 진료소를 찾아서 걸진을 받고 싶어도 사회인들의 나환자에 대한 편견된 인식 때문에 숨기는 처사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엄청난 사실의 해결을 위해서 직접 수고하고 있는 분들중 특히 위정자들과 의료인들 실무자들은 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교육을 국민에게 철저히 해야 하며, 또 발견한 환자에 대한 치료에 앞장서서 우리 모두가 병적 치료가 아닌 데적 협력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인간적인 대응 문제도 뒤따라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 의미에서 우리의 물질적, 정신적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 그들에게 봉사를 베풀어 주는 것이 가장 으뜸가는 행동의 사랑이며 인생의 가치를 영원히 이 세상에서 남겨 놓는 길입니다.

<김계 주임신부>

### \*이주일의 미사\*

#### (1)개회식

□**입당송** 새로운 노래를 주께 불러드리라. 야훼께 노래 불러라. 당신의 앞에는 위엄과 영광, 당신의 성소에는 힘과 빛이 있다.

#### (2)말씀의 전례

□**제1독서** (베레8: 12-4, 5-6, 8-10.)

법전을 읽을 때에 그것을 깨달았다.

□**창세기** 주여 당신의 말씀은 영적 말씀이요. 생명이오리다.

주님의 정의함은 순전하니 영원히 남고 주님의 판단은 참다우니 모두가 다 옳도다. ◎

□**제2독서** (고린토전서 12: 12-30 성서 P. 392)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서로 지체가 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들에게 석방을 알리라. 주께서 나를 보내셨도다 알렐루야.

□**복음** (루가서 1: 1-4, 4: 14-21 성서 P. 121)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채워졌다.

#### ○신자들의 기도

1.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로하시는 주여, 여기 나병으로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소서, ◎주여

2. 주여, 내일부터 교리교사 연수회가 시작됩니다. 수강생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

3. 주여, 우리는 너무나 자주 구경꾼 노릇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교회사업에 동참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

+주여 비오니, 우리의 이 모든 기도가 소리로만 그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우리 주...◎아멘

#### (3)성찬의 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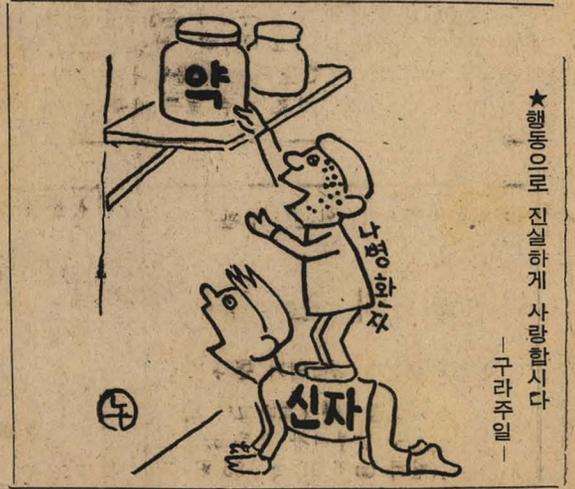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우러러 주님을 보라. 기꺼우리라. 너희 부끄럼이 있을 리 없으리라.

#### (4)폐회식

### \* 숲정이 산책 \*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 구라주일 —

### 꾸르실료가 요구 하는 마음 가짐

-제 7차 꾸르실료를 가지며  
조 성 호

「그리스찬 생활의 꾸르실료」가 우리 전주 교구에 천수 된지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섯번의 꾸르실료를 거쳐 200명의 꾸르실리스타가 배출되었고, 오늘날 어느 본당의 어느 신심단체를 보아도 꾸르실리스타가 들어 있지 않은 곳이 없는 정도로 광범위하게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꾸르실료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리스찬으로, 교회단체의 한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그 성과를 꾸르실료의 이름으로 거두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이름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운동이 그러했듯이 이 꾸르실료운동도 극복해야 할 하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꾸르실료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꾸르실료에 대한 사전 예비지식이 없이 참여했다는데도 이유의 하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꾸르실료가 요구하고 있는 정신자세 또는 태도를 몇가지 적음으로서 꾸르실료를 겪게 될 교향자매에게 적으나마 도움되게 하고, 이것이 앞으로의 꾸르실료 운동에 보탬이 된다면 그 이상 다행한 일은 없겠습니다.

1. 부활과 성신 강림으로 알아 들은 그리스찬 생활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힘을 빌리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신앙입니다.
2. 모든 신도들이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될 사명을 띠었다는 자각과 함께 사도직이 교회생활에서 파생하는 활동이 아니라 교회의 생존 그것이라는 자성입니다.
3.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임하여 이땅에 충만하기까지는 안식을 모르는 마음 가짐이 또 꾸르실료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마음에 품고 꾸준히 참을성 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4. 언제나 보다 잘 일하는 길이 있다고 확신하는 자세 즉 숙명론적인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어떻게 개량하고 쇠퇴할까를 연구하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5. 신자이건 아니건 모든 사람이 은총생활을 받아드릴 마음의 여지가 있음을 믿고 아무런 절망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마음입니다.

(꾸르실료 전주 교구 사무국 주간)



### 상징적 기호들이 몇가지

박진량 신부

초대 신자들은 자기들의 신앙고백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상징들을 이용했다고 한다. 특히 로마시대에는 3백년동안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남몰래 가다뽀바(로마시대의 지하공동묘지)에 모여 기도하고 미사를 드린곤 했는데 그 때 집회장소로 사용하던 곳에는 으레 간단한 그림과 상징적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 중에 몇가지는 오늘날 교회생활에서도 흔히 쓰고 있다. 그러나 세례받은 지가 오래되지 않은 교우들은 그 뜻을 정확히 몰라 궁금해 하는 수가 있다.

**X** - 이것은 희랍말로 *Χριστος*(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처음 두글자를 포개 놓은 것이다. 이 기호는 성당 때문이나 미사 제의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또 미사때 쓰는 제병 안에도 그려져 있다. 요즘은 교회내 단체들의 배지 안에도 흔히 이 기호가 그려져 있는데 때로는 약간 변형해서 표시하는 수도 많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카드나 선물 상자에 「X-mas」라고 쓰고있는데 이것도 역시 희랍어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첫 글자인 「X」를 약자로 쓴 것이다. 그러니까 「피 엑스」가 아니라 X자는 「키」자이며 P자는 「로」자이며, X-mas는 「엑스마스」가 결코 아니며 「그리스마스」라고 읽어야 한다.

**AΩ** - 이것은 앞에 설명한 **X**에다가 희랍말 알파벳의 첫 글자 A(알파)와 맨 끝글자Ω(오메가)를 더 붙여 놓은 것인데 「그리스도는 세상 만물의 시작이며 마침이다.」는 뜻이다.

**IHS** - 이것은 미사 제의 혹은 성작, 미사때 쓰는 큰 제병에 흔히 쓰여 있다. 이것도 희랍말로 **IHSUS**(예수)라는 단어의 처음 3글자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라틴어를 쓰는 교부들에 의해서 더 풍부한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 그래서 **IESUS HOMINUM SALVATOR**(사람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라는 세 단어의 첫 글자들이라고 알아들게 되었다.

**INRI** - 이것은 우리가 쓰고있는 십자가 교상 위에 붙여있는 조그마한 명패에 담겨진 글자인데 **IESUS NAZARENUS REX IUDAEORUM**(유대인의 왕 예수 나자렛 사람)라는 네단어의 첫 글자들이다.

장의차·꽃상여·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 최 씨 관 집

◎ 교우들에게 특별요금 봉사 ◎

최 병 화 (그레고리오)  
전주 남부시장 B동 87호  
(전화 ② 6691 교향85 번)

선물용·케익과 빵, 파자, 찜쌀떡 준비!

### 프 랑 스 제과 \* 임 금 님 찻집 \*

전주 전신 전화국 앞  
● 제과 ⑤5011 찻집 ⑤5013  
김 원 준(야고버)

고급 선물용, 케익, 빵, 파자, 찜쌀떡  
◎ 교우들에게 특별 할인 ◎

### 미 미 제과 상업은행 옆 ⑥6589

미미 사진관  
미미 예식장  
남문 옆 ②3915  
김 민주(가타리나)

양 지 쪽



# 토정비결

시내 다방이나 제과소, 또는 주점에서 가끔 만날 수 있는 아저씨가 있다. 토정비결을 보아주겠다는 아저씨이다. 그런가하면, 구정 전후해서는 길가에 판을 벌여놓은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다. 어느 가정에서는 아예 책을 사두고서 식구대로 토정비결을 본다. 어떻게 보면 토정비결을 보는 일은 우리네 일상생활의 한 분야가 된 듯도 싶다.

옛제는 중학생 또래의 여학생들 대여섯이 책가방을 든 채 토정비결을 펼쳐놓은 좌판 앞에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다. 아마 방학인데도 수업을 하고 나오는 학생으로 여겨지니, 이는 틀림없이 닥쳐올 입시의 결과가 궁금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몰려든 것처럼 보였다. 사람은 누구나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는 가벼운 흥분으로 떨기 마련이다. 기대가 클수록 더한 것이며, 경쟁하는 일이라면 경쟁자가 많을수록 더한다. 닥쳐올 앞날의 일을 미리 알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기왕이면 멋진 미래를 기대하는 것도 인지상정이라. 그래서 옹하다는 점자리를 찾아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운학이 관상을 잘본다니까 ×운학이니 △운학이니 하는 무리가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는가 보다.

토정비결의 저자라고 알려진 이지함(1517~1578)산생은 총명하고 사려가 깊었다고 한다. 어떤 이는 그를 제갈양과 비교하면 어떻겠냐고 울곡선생께 물을 정도였다 한다. 이에 울곡이 대답하기를 「토정은 적절히 쓸 인재가 아니오. 어찌 제갈양과 비교하겠소. 물결에 비유하면 토정은 기화, 이초, 진금, 괴석(奇花, 異草, 珍禽, 怪石)이지, 뼈나 비단이나 콩이나 조, 즉 인간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오.」라고 답했다 한다. 이에 대한 토정의 말이 재미있다. 「내 비록 콩이나 조, 즉 사람이 상식하는 물건은 못되나 도토리나 밤 정도 즉 사람이 간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이것이 어찌 전연 쓸모가 없을까 보나.」

바로 이점이다. 144개의 비결을 놓고서 5천만이 모두 운명을 걸다보니 재미있는 현상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 어떤 이는 토정비결을 반대로 해석해야 엇비슷이 맞아들고, 또 누구는 제대로 해야하고, 재수없는(?) 사람은 하나도 맞지를 않게 된다. 그렇다. 콩하고 도토리는 다르다.

“부지런히 일하고 낭비하지 않으며, 돈쓸 일이 없으면 돈을 모우게 될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장에서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하면 합격할 수도 있다.” (갑)

## 요십이 (28) 김병오



###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진량, 총무 안지은, 전화 ③3498)

- 28 (월)~3월 1일 (금) 7시30분 일본어 교실
- 31 (목) 8시....."목요일 밤에" (남녀 젊은이들의 대화)
- 1 (금) 8시.....레크레이션 (주최; 가톨릭 센터와 J.O.C.)
- 외국 문화 교실 English Conversation.....월~금요일 7시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성 바오로 서원

### \* 이 주간의 성경 \*

- |   |  |
|---|--|
| 28(월) 성 토마스 아퀴노 사제 학자 기념<br>독서(지서 7: 7-10, 15-16)<br>복음(마르코 9: 33-36, 성서 P. 98) | 31(목) 성 요한 보스꼬 사제 기념<br>독서(필립비 4: 4-9, 성서 P. 454)<br>복음(마태오 18: 1-5, 성서 P. 42) |
| 29(화) 독서(히브리 10: 1-10, 성서 P. 509)<br>복음(마르코 3: 31-35, 성서 P. 81)                 | 2, 1(금) 독서(히브리 10: 32-39, 성서 P. 512)<br>복음(마르코 4: 26-34, 성서 P. 83)             |
| 30(수) 독서(히브리 10: 11-18, 성서 P. 511)<br>복음(마르코 4: 1-20, 성서 P. 82)                 | 2(토) 주의 봉헌 축일<br>독서(히브리 2: 14-18, 성서 P. 498)<br>복음(루가서 2: 22-40, 성서 P. 127)    |

제일 비싼 독일의 3년 연속 V.A. 번식 성적 1위인 관토호의 직자

렉스 V 래토프



(입한전 애견)

문의처 : 전화 ②7692(진북동 어은골)

\* 교형 여러분의 집 \*

## 스타 사진관

장남 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② 6094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 영진약국

-조계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역 중앙 시장동  
(전화 ②4577)

